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조교수 문 혁 준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 Moon, Hyuk Jun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결 과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parents, family, and the extra context related to the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from a broader perspective. The subjects were 323 employed mothers and 300 unemployed mothers of pre-school age children. Parenting stress due to the role of being a parent for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was correlated with the chid's activity level, husband support, quality of life, available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of early childhood program's location. Parenting stress due to child-rearing of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was correlated with child's birth order, activity level and rhythmicity of child, husband support, quality of life, available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of early childhood program. Number of children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parenting stress due to the role of being a parent for employed mothers and the child's activity level for unemployed mothers. Besides, the child's activity level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parenting stress due to child-rearing for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주제어(Key Words): 아동(child), 취업모(employed mother), 비취업모(unemployed mother),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Corresponding Author: Hyukjun Moo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an 43-1 Yokkok2-Dong Wonmi-Gu Buchun City 420-743, Korea Tel: 82-2-2164-4486 Fax: 82-2-2164-4485 E-mail: mhyukj@unitel.co.kr

* 본 연구는 2004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 론

시대를 초월하여 자녀양육은 부모의 대표적 역할로서 심리적인 만족감, 기쁨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 개인생활과 여가제한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건강 및 복지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유아기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측면(Abidin, 1992)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현대산업사회의 핵가족 구조하에서 자녀양육의 책임을 다른 가족원의 도움없이 부모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가족의 기능의 약화로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육아는 젊은 부부에게 강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김정옥 · 이광주, 1988).

아울러 취업모에게 있어 자녀양육은 취업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스트레스원(김리진 · 윤종희, 2000)으로 비취업모에 비해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황인향, 1993).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출산, 육아기인 24-35세에 현저히 저하되고 있으며, 25-29세의 기혼여성의 71.8%가 자녀의 양육 문제로 취업의 장애를 경험하였다고 밝혀진 통계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를 통해서도 직업과 양육을 병행하는데 오는 취업모의 역할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한국남편의 양육참여 양상이 목욕, 수유 등의 신체적이고 일상적인 양육지원보다는 자녀의 습관 지도와 놀이지도와 같은 활동이 주류를 이루어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양육활동에 시달리는 취업모의 스트레스 감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강희경 · 조복희, 1999) 여전히 자녀양육의 1차적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부모 자신, 자녀,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인 양육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와 아동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에 작용하는 모든 체계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것이 근래의 지배적인 경향이다.

Abidin(1990)은 부모들이 자녀의 특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를 다르게 지각한다고 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령, 성별, 기질 등 아동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즉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7세 유아의 어머니가 5-6세 유아의 어머니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인다고 하였으며(조경순, 1996), 우리나라의 경우 딸보다 아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남아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가 여아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였다(신숙재 · 정문자, 1998). 또한 Stoneman, Brody와 Burke(1989)는 기질적으로 어려운 아동을 가진 부모는 아동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정상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보았으며, 국내연구에서도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부모역할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임연신 · 현온강, 2002).

부모의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김리진 · 윤종희, 2000; 김경아 · 이정우, 1990). 즉 취업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결과와 이와 정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결과 그리고 연령과 학력과 양육스트레스는 상관이 없다는 결과 등이 있다.

가정의 특성으로 대다수의 연구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일수록 대체 인력이나 기술을 가사나 자녀양육에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정문자 · 이미리, 2000), 자녀수의 증가는 가사노동 시간을 증가시켜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녀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진다고 보고되는 연구들이 일반적이다(고정자, 1994, 김미현 · 류점숙 · 신효식, 1993).

상황적 특성으로는 배우자의 지지, 사회적 지원, 생활만족, 탁아에 대한 만족을 들 수 있다. 남편은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가족행사 등에서 역할을 분

담하거나 심리적으로 부인의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부인의 이중역할 갈등과 스트레스를 낮추어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전춘애 · 박성연, 1996),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 역할 수행을 격려, 정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유능감을 향상시키는 등 역할 긴장에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다(Greenberger & O'Neil, 1993). 또한 Crnic과 Greenberg(1990)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경우 심리 상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주부의 경우 사회적 지원을 받을 때 역할갈등이 훨씬 적은 것으로 밝혀지는(고은숙 · 김명자, 1992) 등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개인의 행복과 정신건강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요소로 삶의 질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생활사건의 경험은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낮은 생활만족도와 높은 우울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chwarzberg & Dytell, 1989). 국내연구에서도 가정의 경제적 빈곤, 부적절한 주거환경,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부모의 생활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에 대한 만족과 적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김오남 · 김경신, 1998),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들이 자녀양육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낮은 생활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희금, 1999).

현대사회로 올수록 그리고 미래사회로 갈수록 유아교육에 대한 기회확대는 물론 보육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화의 과정에서 여성인력의 노동시장참여와 가족형태의 변화로 사회적 양육지원 없이는 자녀의 돌봄과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 5년간 3-5세 유아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취원율은 1995년 42.3%, 1997년 52.5%, 1999년 56.1%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교육부, 2000; 보건복지부, 2000). 이에 따라 보육시설의 질이 취업모의 역할 긴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으며(김교연, 1994), 양육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되었다(조혜승, 1997). 이러한 결과는 우리보다 보육의 역사가 긴 서구의 연구에서도 보육 유형이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되어 있는 경우 취업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Neal, Chapman, Ingersol-Dayton, & Emlen, 1993)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육의 질이 부모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에 관한 요인을 자녀 관련 변수와 부모관련변수로 구성하고 가족환경 변수와 기타변수를 상황적 요인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처럼 네 요인으로 나누는 이유는 양육스트레스가 단지 어머니의 특성과 개인의 의지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요인의 산물로 사회 ·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부모의 행동을 유발한다는 생태학적 시각을 반영하는 동시에 각 요인의 영향력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며,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심리적 요인에 작용하는 모든 환경체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최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몇몇 연구에서 장애아 어머니(하수민 · 윤종희, 2002), 맞벌이 부부(김기현 · 조복희, 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김리진 · 윤종희, 2000),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박정희 · 장영애, 2003)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취업모의 자녀양육환경과 양육스트레스 경험에 있어서 비취업모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자녀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련변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 규명하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방안을 취업유무에 따라 구체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가 양육과 역할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해 줌으로써 가족 · 사회적 지원체계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서비스 및 정책을 개발하는데 의의가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취업모 N(%)	비취업모 N(%)
자녀수	1명	31(21.4%)	67(10.3%)
	2명	225(66.9%)	211(75.0%)
	3명 이상	44(11.6%)	38(14.6%)
어머니교육수준	고졸	93(29.8%)	174(59.4%)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61(19.1%)	39(13.3%)
	대졸	93(42.7%)	79(27.0%)
	대학원졸	27(8.5%)	1(0.3%)
아버지교육수준	고졸	57(18.9%)	101(34.0%)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35(11.2%)	40(13.8%)
	대졸	159(51.9%)	127(43.9%)
	대학원졸	56(17.9%)	21(7.3%)
월 가계 수입	200만원 미만	33(10.9%)	106(34.6%)
	200-299만원	67(21.6%)	116(38.9%)
	300-399만원	81(25.6%)	44(14.8%)
	400만원 이상	132(41.9%)	32(10.7%)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

2.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아동, 부모, 가정, 상황변인은 무엇인가?

3.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이며, 이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위치하는 유아교육기관 12곳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 623명(이 중 취업모 323명)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 연령은 3.05세(SD=.976)이었으며, 남아가 47.0%를 차지하였다. 취업모의 평균 연령은 34.68세(SD=3.48), 비취업모의 평균 연령은 33.54세(SD=3.81), 취업모 남편의 평균 연령은 37.55세(SD=3.97), 비취업모 남편의 평균 연령은 33.54세(SD=3.81)이었으며,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상관없이 80%이상의 가정이 핵가족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기질,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원, 유아교육기관(유치원과 보육시설) 만족도에 관한 어머니용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연구도구의 문항수 및 내적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Crnic과 Greenberg(1990)가 개발한 PHD(Parenting Daily Hassles)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8문항)와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7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다'이며, 자녀양육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외출했을 때 아이를 다루기

<표 2> 연구도구의 문항수 및 Cronbach α

연구도구	문항수	Cronbach α
양육스트레스	15	.89
아동의		
활동성	6	.71
규칙성	3	.84
적응성	7	.88
배우자의 지지	10	.93
생활만족도	17	.89
사회적 지원	19	.91
유아교육기관만족도	20	.92

가 어렵다' 이다.

2) 아동의 기질

천희영(1993)의 척도에서 활동성(6문항), 생리적 규칙성(3문항), 적응성(7문항)의 문항만으로 구성되었다. 활동성은 신체적 움직임의 활발함을, 생리적 규칙성은 수면, 식사에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임을, 적응성은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도를 의미한다. 문항은 1점부터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차원의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역별 대표적인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활동성은 '팔과 다리 등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적인 놀이를 더 즐긴다', 생리적 규칙성은 '매일 저녁 비슷한 시간에 잠이 든다', 적응성은 '다른 집을 한 두번 방문하면 그 곳 사람들과 쉽게 어울린다' 이다.

3)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현온강·조복희(1994)가 개발한 어머니 역할만족도에서 배우자의 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문항의 예는 '남편은 아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의논하는 편이어서 기쁘다' 이다.

4) 생활만족도

Hayes와 Stinnett(1971)의 척도를 모체로 수정 보완한 척도로 4가지 하위영역(결혼만족도, 생활수준 만족도, 직업 및 하루일과 만족도, 여가 및 사회참여 만족도)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1점부터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영역별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 결혼만족도의 경우 '평소 생각하던 이상적인 결혼과 비교했을 때 당신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직업 및 하루일과 만족도의 경우 '현재의 직업(주부 포함)이 당신의 지식이나 기술, 능력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수준만족도의 경우 '우리 가족의 소득수준이 가족과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여가 및 사회참여 만족도의 경우 당신은 취미를 살리거나 여가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다.

5)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Weiss (1974)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를 제외한 정보적 지지(4문항), 의존적 지지(3문항), 타인에 대한 지지(4문항),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4문항), 소속감의 지지(4문항)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점수는 1점에서 4점으로 배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사회적 지원에 대하여 지지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역별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 정보적 지지의 경우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조언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의존적 지지의 경우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다', 타인에 대한 지지의 경우 '나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평가적 지지의 경우 '나는 내가 가진 능력과 기술이 인정받는 곳에서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소속감의 지지의 경우 '나는 내가 가진 신념과 믿음을 공유하는 집단에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낀다' 이다.

6) 유아교육기관만족도

자녀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어머니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Parents as Consumers (Furqua & Labenson, 1986)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김은숙(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통원

만족도(3문항),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5문항), 교사에 대한 만족도(3문항), 교육시간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4문항), 시설 및 교재교구의 만족도(5문항)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취원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어머니가 만족함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및 분석

본 조사는 2002년 하반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배부된 설문지 중 65%인 65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623부를 최종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Windows용 SPSS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서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각 변인들과 양육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표 3, 4〉를 살펴보면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아동군에서 활동성, 상황군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생활만족, 사

〈표 3〉 각 변인들과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양육요인 스트레스
아동군		
성별[1]	-.01	.07
연령	-.15**	-.16**
출생순위[2]	-.11	-.14*
기 질		
활동성	.28***	.26***
규칙성	-.10	-.25***
적응성	-.12*	-.25***
부모군		
어머니 연령	-.10	-.06
아버지 연령	-.10	-.05
어머니 교육수준	.05	.00
아버지 교육수준	.06	-.03
가정군		
자녀수	.09	.03
성인수	.03	.00
가계수입	-.04	-.05
상황군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16**	-.16**
생활만족	-.29***	-.28***
사회적 지원	-.23***	-.38***
유아교육기관만족	-.12*	-.16**

*p<.05, **p<.01, ***p<.001
[1]남아=0, 여아=1, [2]첫째=0, 둘째 이하=1

〈표 4〉 각 변인들과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양육요인 스트레스
아동군		
성별[1]	.12	.08
연령	-.04	-.09
출생순위[2]	-.10	-.17**
기 질		
활동성	.22***	.25***
규칙성	-.03	-.17**
적응성	-.10	-.11
부모군		
어머니 연령	.00	-.11
아버지 연령	.03	-.04
어머니 교육수준	.17**	.03
아버지 교육수준	.12*	-.08
가정군		
자녀수	.11	-.01
성인수	.06	.06
가계수입	-.04	-.16**
상황군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28***	-.22***
생활만족	-.32***	-.25***
사회적 지원	-.20***	-.23***
유아교육기관만족	-.14*	-.20***

*p<.05, **p<.01, ***p<.001
[1]남아=0, 여아=1, [2]첫째=0, 둘째 이하=1

회적 지원, 유아교육기관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동의 활동성이 낮고,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가 높고, 생활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지원이 높으며, 유아교육기관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아동군에서 연령, 적응성, 비취업모의 경우 부모군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취업모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 높고, 적응성이 높으며, 비취업모의 경우 아동이 남아이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아동군에서 출생순위, 활동성, 규칙성, 상황군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생활만족, 사회적 지원, 유아교육기관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가 아니고, 비활동적이고, 규칙적이며,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가 높고, 생활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지원이 높으며,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에는 아동군에서 적응성,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가정군에서 가계수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취업모는 아동의 적응력이 높은 경우 비취업모는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됨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부모됨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군, 부모군, 가정군, 상황군을 차례로 첨가하여 본 결과, 취업모의 부모됨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비율은 15%에서 30%로 증가하였으며, 비취업모의 부모됨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는 10%에서 34%로 증가하였다.

모든 변인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유무와 상관없이 아동군에서 활동성, 가정군에서 자녀수가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에는 아동군에서 연령, 부모군에서 아버지 교육수준, 상황군에서 직업만족 및 하루일과 만족도가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아동군에서 성별, 출생순위, 상황군에서 유아교육기관만족도 중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취업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3. 자녀양육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자녀양육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군, 부모군, 가정군, 상황군을 차례로 첨가하여 본 결과, 취업모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비율은 26%에서 41%로 증가하였으며, 비취업모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16%에서 36%로 증가하였다.

모든 변인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유무와 상관없이 아동군에서 성별, 연령, 출생순위, 활동성, 규칙성, 상황군에서 유아교육기관만족도 중 통원만족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에는 아동군에서 적응성, 상황군에서 사회적 지원 중 소속지원, 유아교육기관만족도 중 교육시간 및 내용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부모군에서 아버지 교육수준, 상황군에서 생활수준만족, 사회적 지원 중 타인 지원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취업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Bigras, Lafreniere와 Dumas(1996)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고, 우울하며, 결혼생활에 부적응을 보일 뿐 아니라 아동에 대

〈표 5〉 부모됨으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취업모 β	비취업모 β	취업모 β	비취업모 β	취업모 β	비취업모 β	취업모 β	비취업모 β
아동군								
성별[1]	.02	.13*	.01	.17**	.01	.18**	.01	.17**
연령	-.13*	-.04	-.11	-.02	-.15*	-.07	-.14*	-.07
출생순위[2]	-.06	-.07	.01	-.09	-.07	-.23**	-.10	-.22**
기 질								
활동성	.33***	.30***	.34***	.27***	.29***	.28***	.23***	.29***
규칙성	-.11*	-.00	-.12*	-.00	-.11	-.01	-.09	-.03
적응성	-.20***	-.17**	-.21***	-.16*	-.16*	-.14*	-.12	-.08
부모군								
어머니 연령			-.07	.03	-.09	.06	-.05	.02
아버지 연령			-.05	.04	-.03	.03	-.09	-.02
어머니 교육수준			.01	.12	-.01	.11	.00	.11
아버지 교육수준			.05	.06	.07	.07	.16*	.12
가정군								
자녀수					.21**	.20**	.21***	.17**
총성인수					.03	-.03	.02	.01
가계수입					-.03	-.08	-.01	.02
상황군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12	.13
생활만족								
결혼 만족							.02	.02
직업 및 하루일과 만족							-.17*	-.02
생활수준 만족							.01	-.15
여가 및 사회참여 만족							-.10	-.07
사회적 지원								
의존지원							-.13	-.04
정보지원							.09	-.02
타인지원							.01	.03
소속지원							.12	-.02
평가지원							.04	-.10
유아교육기관만족								
통원							.09	-.10
부모교육							.01	-.24**
교사							.01	-.16
교육시간 및 내용							.05	-.05
시설 및 교구교재							-.07	-.06
R^2	.15	.10	.16	.14	.17	.19	.30	.34
F	9.14***	5.57***	5.45***	4.17***	4.49***	4.48***	3.99***	4.39***

*p<.05, **p<.01, ***p<.001

[1]남아=0, 여아=1, [2]첫째=0, 둘째 이하=1

〈표 6〉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취업모 β	비취업모 β	취업모 β	비취업모 β	취업모 β	비취업모 β	취업모 β	비취업모 β
아동군								
성별[1]	.08	.08	.07	.09	.09	.11*	.10*	.11*
연령	-.13**	-.07	-.15**	-.06	-.17**	-.11	-.19*	-.12*
출생순위[2]	-.12*	-.16**	-.11	-.15*	-.14*	-.23**	-.17*	-.20**
기 질								
활동성	.36***	.31***	.35***	.32***	.33***	.33***	.25***	.34***
규칙성	-.24***	-.16**	-.24***	-.16**	-.24***	-.16**	-.16**	-.14*
적응성	-.28***	-.16**	-.28***	-.16*	-.25***	-.15*	-.19**	-.10
부모군								
어머니 연령			-.03	-.08	-.06	-.04	-.03	-.11
아버지 연령			.01	.08	.02	.07	-.01	.08
어머니 교육수준			.01	-.05	.03	-.05	.09	-.03
아버지 교육수준			-.01	.09	-.03	.12	.04	.15*
가정군								
자녀수					.09**	.11	.10	.07
총성인수					-.07	-.01	-.06	.04
가계수입					-.04	-.16**	-.01	-.07
상황군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07	.09
생활만족								
결혼 만족							.02	.05
직업 및 하루일과 만족							-.13	.01
생활수준 만족							-.08	-.18*
여가 및 사회참여 만족							-.00	.05
사회적 지원								
의존지원							-.11	.11
정보지원							-.02	-.03
타인지원							-.06	-.16*
소속지원							-.17*	-.00
평가지원							.05	-.08
유아교육기관만족								
통원							-.13*	-.16*
부모교육							.06	.13
교사							-.11	-.08
교육시간 및 내용							-.21*	-.05
시설 및 교구교재							-.14	-.10
R^2	.26	.16	.26	.17	.26	.23	.41	.36
F	19.1***	9.06***	10.1***	5.60***	7.29***	5.98***	6.41***	4.74***

*p<.05, **p<.01, ***p<.001

[1]남아=0, 여아=1, [2]첫째=0, 둘째 이하=1

하여 더 부정적, 통제적인 부모역할을 보이는 등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에 결정적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성인의 심리적 안녕은 부모로서의 기능에 영향을 주고 아동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부모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아동, 부모, 가정, 상황적 특성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과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배우자의 지지가 높고, 생활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지원이 높으며,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전춘애·박성연(1996)의 결과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높고 아동의 기질이 순한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았다는 주은희·이영(2001)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남편으로부터의 지원이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긴장감이나 일과 어머니 역할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갈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게 되는 것으로 추측되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지원 등을 받는 것이 양육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는 누가 자녀를 돌보는가,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가, 보육형태는 안정적인가, 보육비용은 얼마나 적절한가 등과 같은 요인이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보육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강희경·조복희(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취업모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감 등 상담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취업모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측면(NICHD, 1997)에서 나타난 자연스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변인 중 활동성은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연령은 취업모의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성별, 출생순위는 비취업모의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 출생순위, 활동성, 규칙성은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적응성은 취업모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출생순위, 연령, 성별, 기질에 따라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부담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첫째 또는 외동아의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육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이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맏이의 경우 둘째 이하의 자녀보다 어머니 격리불안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박성옥(1994)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여 준다. 또한 자녀를 두고 계속 직장에 다녀야 하는 취업모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보호와 돌봄이 더욱 요구되면서 오는 신체적 피로감 및 시간적 제한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격리상황으로 인한 불안 및 죄책감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면서 기인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딸이 아들에 비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연약하며 상처받기 쉽다고 어머니들이 지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여아인 경우 남아에 비해 탁아에 대한 죄책감 수준이 높았다고 밝혀진 결과(Mann & Thornburg, 1987)와는 맥을 같이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남아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가 여아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에 비해 높다고 밝혀진 신숙재·정문자(1998)의 결과와는 상이하다. 기질에 있어서는 Vaughn, Stevenson-Hinde, Waters, Kotsaftis, Lefever, Shouldice, Trudel과 Belsky(1992)의 연구결과에서 유아가 적응성이 낮고

활동적일수록 어머니는 유아가 까다롭다고 인지하였으며, 자녀의 기질을 까다롭다고 인지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며(김기현 · 조복희, 2000) 과활동의 부모는 정상아 부모보다 아동과의 관계에서 더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Barkeley, 1981)와 일치한다. 특히 일상적인 양육과 가사에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동의 기질적 불규칙성과 부정적 기분상태가 어머니의 상황적 요구와 부적합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llins & Russell, 1991). 즉 수면패턴에서의 불규칙성은 유치원에 지각하는 등의 문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과 어머니는 더 많은 갈등 상황에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적응성이 낮은 유아들은 포기나 거부, 기피, 토라짐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 상황에 따른 행동 변화에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Thomas & Chess, 1977)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짜증과 피로가 더 유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세영 · 박성연(1997)의 연구에서 아동의 기질 자체보다는 기질 특성이 부조화될 경우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 심하게 지각되는 등 모-자녀 기질간의 조화/부조화가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측면도 추후연구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변인에서는 아버지 교육수준만이 취업모의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취업모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경우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을 뿐 아니라 남편이 육아에 공동참여한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들이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여주었다는 주은희 · 이영(2001)의 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넷째, 가정군에서는 자녀수만이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자녀수의 증가는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여성에게 있으므로 자녀수가 많은 것은 취업한 여성에게 신체적 · 심리적 부담감과 재정적 뒷받침, 시간의 부족, 활동의 제약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상황군에서는 취업모의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직업 및 하루일과만족도, 비취업모의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생활수준만족도,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취업모의 경우 소속지원, 통원에 대한 만족, 교육시간 및 내용에 대한 만족, 비취업모의 경우 생활수준만족도, 타인지원, 통원에 대한 만족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직업에 대한 만족은 일의 생산성이나 능률 향상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른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정순희(2001)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사회적 지원 중 소속감이 중요하게 나타난 결과는 Goode(1964)의 연구를 통해 취업주부는 직업에서 만족, 사회참여를 통한 소속감 및 만족감으로 생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직장 상사와의 친밀감이나 동료의 우정과 같은 긍정적인 대인 관계는 직장 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가정 생활에 직접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한 Crouter와 McHale(1993)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비취업모는 취업모와 달리 타인지원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비취업주부들이 점차로 사회에서 쓸모가 없고 소외되었다고 느끼면서 고통을 당하고 긴장감을 가짐에 따라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는 등 주위사람들과 감정적 교류가 원만할 때 갈등이 감소되는 것으로 본 Ferree(1976)의 연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취업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인 상태가 스트레스에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지원의 유형에 따른 효과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취업모와 달리 비취업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소득수준, 소유재산,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등의 생활수준만족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점도 흥미롭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직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보상이 개인적 자아존중감을 상승시켜(Umberson & Gove, 1989) 생활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물질적인 측면보다 내적 성취감 등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유아교육기관에 있어서는 비취업모의 경우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교육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보이며, 조은진(1998)의 연구에서 부모의 의견과 참여, 부모-교사 파트너쉽 관계,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유치원 학부모가 강조하고 있었다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취업모에게 있어 통원만족도와 교육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시간에 쫓기는 취업모에게 있어 위치와 시간적으로 쉽게 이용가능한 보육시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영(1986)의 연구에서 탁아시설 선택시 고려사항으로 거리와 위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함으로써 직장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들의 보육만족도가 직장보육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여성들의 보육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하정희 · 강병재(1999)의 연구에서 보듯이 취업모와 아동의 복지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의 신설 및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일곱째, 회귀분석을 통해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활동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가 취업유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난 점을 비추어 볼 때 양육스트레스와 연구대상의 세분화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동시에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임을 다시 한번 더 입증해 보여주었다. 또한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부모 개인변수보다는 아동과 가정관련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취업모에게 있어 직장 상황이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내적 자원인 건강과 우울성향 등이 측정되지 못하였으며, 취업모의 직업 유형을 구분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어머니 관련 변인의 좀 더 포괄적인 연구와 전문직, 사무직, 생산직, 판매직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취업 주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직무관련 변인에 근무시간, 근무환경, 직장상사 및 동료의 지원 등의 변수를 포함시켜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자칫 양육스트레스는 사소하게 인식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며 누적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강희경, 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 41-55.

고은숙, 김명자(1992). 취업모의 스트레스원,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3), 45-60.

고정자(1994). 맞벌이 부부가족의 가족자원,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97-116.

교육부(2000). 유치원 총괄현황. 미간행자료.

김경아, 이정우(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생활상의 stress 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12), 101-117.

김교연(1994). 탁아서비스의 질이 취업모의 역할긴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현, 조복희(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김리진, 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김미현, 류점숙, 신효식(1993). 주부와 가정생활상의 stress와 심리적 손상에 관한 연구: 광주시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6), 111-126.

김오남, 김경신(1998). 편모가족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9(12), 107-123.

김은숙(2001). 학부모의 유아교육기관 선택시 고려요인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옥, 이광주(1988).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여성문제연구, 16, 37-59.

박성옥(1994). 탁아 및 취업관련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격리불안. 한국심리학회지, 7(2), 24-37.

박정희, 장영애(200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31-44.

보건복지부(2000). 보육통계. 중앙보육정보센터.

신숙재, 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이 영(1986). 전문직 취업모의 자녀관리 현황 조사. 아동학회지, 7(1), 1-23.

임연신, 현온강(200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1), 23-37.

전춘애, 박성연(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3), 95-105.

정문자, 이미리(2000). 취업주부의 직업 및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5-126.

정순희(2001).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취업중단의사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3), 35-45.

조경순(1996). 학령전 아동양육시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논문집, 22, 5-17.

조은진(1998).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소비자로서 학부모의 목적과 선택기준. 한국영유아보육학, 15, 191-208.

조혜승(1997).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희금(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 생산직과 사무직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145-158.

주은희, 이 영(2001). 유아기 자녀를 둔 일본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요인 연구. 생활과학논집, 15, 89-106.

천희영(1993). 한국아동의 기질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수민, 윤종희(2002).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191-200.

하정희, 강병재(1999). 직장보육이 기혼 직업여성의 양육만족과 직무에 미치는 영향. 연구논총, 9, 297-3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보육사업평가: 시설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한세영, 박성연(1997).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황인향(1993). 취업주부의 가족자원과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온강, 조복희(1994).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12), 97-108.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4)*, 298-301.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Barkeley, R. A. (1981). Hyperactivity. E. J. Mash & L. G. Terdul(Eds.), *Behavioral assessment of*

childhood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Bigras, M.,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parent and child scales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7(2)*, 167-178.

Collins, W. A., & Russell, G. (1991).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1*, 99-136.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Crouter, A., & McHale, S. (1993). The long arm of the job: Influences of parental work on childrearing. In T. Luster & B. O.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s*. Hillsdale, NJ: Erlbaum. .

Feree, M. M. (1976). The confused American housewife. *Psychology Today, 10(4)*, 76-89.

Fuqua, R. W., & Labenson, D. (1986). Parents as consumers of child care. *Family Relations, 35*, 295-303.

Goode, W. J. (1964). *The family*. Tokyo: Prentice Hall, Inc.

Greenberger, E., & O'Neil, R. (1993). Spouse, parent, worker: Role commitments and role related experiences in the construction of adults'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181-197.

Hays, H. P., & Stinnett, N. (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9)*, 669-674.

Mann, M. B., & Thornbu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Neal, M. D., Chapman, N. J., Ingersol-Dayton, B., & Emlen, A. C. (1993). *Balancing work and caregiving for children, adults, and elders*. Newbury Park: Sag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 of infant and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 860-879.

Schwarzberg, N. S., & Dytell, R. S. (1989). Family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In E. B. Goldsmith(Ed.), *Work and famil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pp. 175-190). Newbury Park, CA: Sage.

Stoneman, Z., Brody, G. H., & Burke, M. (1989). Marital quality, depression, and inconsistent parenting: Relationship with observed mother-child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105-117.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er/Mazel.

Umberson, D., & Gove, W. R. (1989).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1(3)*, 498-516.

Vaughn, B. E., Stevenson-Hinde, J., Waters, E., Kotsaftis, A., Lefever, G. B., Shouldice, A., Trudel, M., & Belsky, J. (1992). Attachment security and temperamen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Some conceptual clar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63-173.

Weiss, R. S. (1974). The provision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 (Ed.), *Doing unto others*(pp. 17-26).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2004년 5월 28일 접수, 2004년 8월 30일 채택)